

『노상추일기』로 본 조선후기 군호(軍號)에 담긴 생활상 연구

김윤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민속학 전공

yoonee6614@naver.com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군호 시달 체계와 거행 방법
 - III. 무관 노상추의 근무 경력과 군호 기입 양상
 - IV. 생활상이 반영된 조선후기 군호 작명
 - V. 맺음말
-

I. 머리말

군호는 군대에서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활용하는 암호호로, 조선에서는 속칭 ‘언적(言的)’이라고 하며 궁성 방위와 야금(夜禁) 순찰을 목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입직장사(入直將士) 사이의 피아 확인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순작(巡緝)은 개국 초기부터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1394년(태조 3)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군제 개정에 관한 상서를 올리며 한나라 남군과 북군의 유제에 따라 궁문 시위와 경성 순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² 정조의 시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입직 교체일이 인(寅)·신(申)·사(巳)·해(亥)가 든 날로 정해진 사유에 대해 이상의 상서문과 관련시켰고,³ 조선전기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관련 법령이 있는바 건국 초부터 군호의 사용을 유추할 수 있다.

전제군주제에서 궁성 내외의 순작은 왕의 안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위중한 업무에 속했다. 따라서 군호의 결재를 담은 군호단자(軍號單子)는 기밀문서로 다루어졌고, 이로 인해 현존하는 문헌이 드물어 서지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무관인 노상추(盧尙樞, 1746~1829)의 개인일기⁴ 중 중앙 군영에서의 입직 업무를 정리한 글에는 정조~순조 연간

1 『經國大典』兵典 行巡, “軍號俗稱言的”.

2 『太祖實錄』3년(1394) 2월 29일, “今將侍衛 分屬侍衛巡衛等諸司 蓋法漢朝南北軍之遺制也. 漢南軍掌宮門侍衛 北軍掌京城巡檢 此內外相制 長治久安 禍亂不生 已然明驗. 今將義興忠佐 雄武 神武爲侍衛司屬中軍 以寅申巳亥 上 大將軍各率其領將軍以下 闕門輪番 以効漢南軍之制 龍驤 龍騎 龍武及虎賁 虎勇 虎翼爲巡衛司屬左右軍 上 大將軍使其領將軍以下於梁直更 巡四門把截 輪番上直巡緝 以効漢北軍之制. 其當番各司上將軍以下義興三軍府 以時知委 毋致違忤. 凡入直 不許無故出入 違者 罪之”.

3 『弘齋全書』(13) 序引(6) 翼靖公奏藁軍旅類叙【庚申】, “故奉化伯鄭道傳 請以寅申巳亥 上大將軍 率其領輪番 一倣漢制 寅申巳亥遞直 始於此”.

의 군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사용된 군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기가 가진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동안 조선시대 군호를 다룬 선행연구는 신문과 월간지 기사의 소재로 활용되는 단편적인 형식이며,⁵ 주제로 다룬 연구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중 주목되는 자료는 누대로 무관을 배출했던 성주 이씨 집안을 통해 삼군영 생활사를 다룬 서울역사박물관의 2020년 전시 도록 『한양을 지켜라』⁶이며, 군호의 결재 방식과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중 1792년 7월 한 달간의 군호를 제시하며 용례를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법전을 바탕으로 조선의 군호 시달 체계를 정리하고, 『훈국등록(訓局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거행 사례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노상추일기』 중 1790년부터 1811년까지 기록된 422건의 군호를 낱씨, 농사, 월력, 기념일 주제별로 분류하여 생활상의 관계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군호 사용과 작명 방식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 4 노상추가 작성한 일기는 1762년부터 1829년까지 68년간의 기록이며, 그중 14년간의 일기는 전하지 않으므로 현전하는 것은 53년간의 일기이다. 한 해를 기준으로 1권을 묶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간지를 권제로 삼았고, 60갑자를 넘어서는 68년의 기록이므로 동일한 간지가 반복된 경우 '再'를 덧붙여 『再壬午日記』 등으로 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노상추의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노상추일기』로 칭하며, 권별 내용을 탐구할 때는 일기의 권제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서울: 너머북스, 2009), 23쪽 참조.
 - 5 최재복, 「조선시대 암호, 군호」, 《경향신문》, 2006년 12월 17일자; 정진술, 「조선시대 암호 신호 체계」, 《문화재사랑》, 2010년 11월호; 이윤석, 「1902년 5월 12·13일 밤 대한제국 육군 암호호는」, 《월간중앙》, 2021년 2월호.
 - 6 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을 지켜라』(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20), 132~133쪽.

II. 조선시대 군호 시달 체계와 거행 방법

조선의 법전에서 군호가 처음 언급되는 것은 『경국대전』 병전(兵典)의 ‘행순(行巡)’ 중 궁성 네 방위의 문에서 직숙하고[宮城四門外直宿], 통행 시표신을 지참하는 것[通行標信]⁷과 ‘계생기(啓省記)’의 입직장사의 파수 방법[宿衛行巡人]에 관한 법령이다. 법령의 내용을 통해 조선초기 군호 시달 업무 순서를 정리하면, 병조 입직 당상관은 경수소 숙직을 맡은 군사 명단을 작성하여 초저녁[初昏]에 봉진하는데, 이때 군호도 함께 올린다. 왕의 재가가 이루어지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호군(護軍)을 비롯한 각처에서는 초저녁에 병조로부터 군호를 받는다. 통금이 시작되는 인정 이후 정병(正兵) 2인이 궁성을 순회하며 경수소와 각 문에 군호를 전해주며, 순작은 통금 해제를 알리는 파루까지 수시로 이어진다. 숙직 관원은 승정원에서 통행표신을 받고 이튿날 아침에 반납하는데, 15세기 야금 순찰은 병조를 포함하여 형조·의금부·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등 여러 관사에서 이루어졌다.

군호에 관한 세부 조목이 법전에 성문화된 것은 1746년(영조 22) 『속대전(續大典)』으로, 여기에는 군호 작명 담당관, 제출 시간, 누설 시 형벌, 교외 거동 시 재가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⁸ 이에 따르면 병조의 입직 당상관이

7 『經國大典』兵典 巡行, “光化門護軍 初昏受鐸於本曹 并受軍號【各處受軍號同. 軍號俗稱言的】. 人定後 令正兵二人搖鐸巡宮城 四面警守所及各門 次次傳授 循環不已 至罷漏而止”; 『經國大典』兵典 巡行, “本曹 刑曹 義禁府 漢城府 修城禁火司 五部直宿員 受通行標信【體圓. 一面書通行 一面篆烙通行. ○夜行及陣中 用之】. 于承政院【翌日朝 還納】. 軍號於本曹 各率其司衙前 使令 無時行巡. 【行在時同】”.

8 『續大典』兵典 巡行, “軍號 入直堂上官親書封押 每日申時 使郎官親呈政院【本曹無行公堂上 則摠府首堂上舉行如例 摠府俱空 則兵房承旨舉行. ○私傳軍號於同伍軍士者 本曹決棍】. 郊外動駕時 東宮不爲隨駕 則達於東宮 東宮若隨駕 則排日預爲啓下 置本曹”.

표1-조선 기본법전에 수록된 군호 관련 법령

	1484년(성종 15)	1746년(영조 22)	1785년(정조 9)	1865년(고종 2)
	『經國大典』 兵典	『續大典』 兵典	『大典通編』 兵典	『大典會通』 兵典
1	行巡 [宮城四門外直宿]		行巡 [宮城四門外直宿]	行巡 [宮城四門外直宿]
2	行巡 [通行標信]		行巡 [通行標信]	行巡 [通行標信]
3		行巡 [無時夜巡]	行巡 [無時夜巡]	行巡 [無時夜巡]
4		行巡 [軍號]	行巡 [軍號]	行巡 [軍號]
5		行巡 [行巡人受軍號]	行巡 [行巡人受軍號]	行巡 [行巡人受軍號]
6	啓省記 [宿衛行巡人]		啓省記 [宿衛行巡人]	啓省記 [宿衛行巡人]

매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군호를 써서 봉압한 뒤 낭관을 거쳐 승정원에 올린다. 이때 당사관이 없으면 도총부의 수석 당상, 병방의 승지 순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같은 부대의 동료에게 군호를 사사롭게 전하는 것은 곤(棍)으로 처벌하며 부대 내에서도 누설을 금지하였다. 왕이 교외에 동가(動駕)할 때 군호 재가는 동궁이 대행하였지만, 동궁이 어가를 수행할 때는 해당하는 날짜의 군호를 미리 재가하여 병조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군호 보고와 전달이 초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문의 개폐 시간과 관계된다. 개국 초기에 궁성문과 도성문의 개방 시간은 파루로 동일했다. 그러나 예종조에 궁문 개방이 평명(平明)으로 변경되면서 궁성문의 개폐 시간은 평명과 초혼, 도성문은 파루와 인정으로 조정되며 궁성문이 더 일찍 닫고 늦게 열게 되었다.⁹ 순작은 야금 순찰 업무이기 때문에 성문이 닫히는 시간에 맞춰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폐문 시간이 더 빠른 궁성문에 맞춰 신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시대 관리의 근무시간은 묘시(卯時, 오전 5~7시)에 출근하여 유시(酉時, 오후 5~7시)에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고 해가 짧을 때는 진시(辰時, 오전 7~9시)와 신시로 조정되었으므로¹⁰ 낮과

9 『東國輿地備攷』(2) 漢城府 巡行, “宮城門 初昏閉平明開 都城門 人定閉罷漏開. … 【自國初罷漏 則宮城門及外城門盡閉. 自睿宗朝平明始開宮門】”.

밤의 시간 인식과 더불어 관리의 퇴근 시간, 궁성문 폐쇄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속대전』에는 군호 작명 방식이 나타나지 않지만, 『승정원일기』를 통해 군호로 적절하지 못한 단어와 반려되는 문서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군호 단어가 문제되어 작명 담당관인 병조 당상이 추고당한 사례로 ‘군신(君臣)’¹¹, ‘길흉(吉凶)’¹², ‘요순(堯舜)’¹³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단어에 함의된 무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보인다. 1782년(정조 6)에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군호 초기를 3번 반려한 끝에 병조 당상을 추고하기도 했다. 서류 양식의 문제로는 연월 아래 군호를 기입하는 상규를 어기거나,¹⁴ 날짜를 누락하거나,¹⁵ 군호 아래 가(可)를 쓰는 규례를 빠뜨리거나,¹⁶ 자획이 지나치게 크게 쓴 경우¹⁷ 등 작성 방식의 오류에 해당한다. 아울러 1684년(숙종 10)에는 병조참의가 군호를 대필로 작성하여 기밀 누설로 인한 파직을 당했다.¹⁸

10 『經國大典』 吏典 考課, “諸司官員 卯仕酉罷【日短時 辰仕申罷】”.

11 『承政院日記』 肅宗 12년(1686) 3월 15일, “政院啓曰 伏聞昨日兵曹 以君臣爲軍號 事甚駭異 故取見其啓下單子 則果如所聞. 君臣 是何等文字 而作爲軍令 傳呼道路 事體未安 聽聞有駭 不可無警責之道 請兵曹當該堂上 推考 何如? 傳曰 允”.

12 『承政院日記』 肅宗 13년(1687) 2월 22일, “又啓曰 伏聞今月十三日軍號 以吉凶二字 啓下頒布 聽聞可駭 當日入直兵曹堂上 請推考. 傳曰 允”.

13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4) 9월 10일, “備忘記 <傳> 于鄭彥燮曰 堯·舜 大聖也 而書諸軍號 達宵坐立而呼 豈尊聖人之意哉? 兵曹堂上推考 更爲書入”.

14 『承政院日記』 孝宗 7년(1656) 8월 22일, “尹鍊啓曰 以兵曹軍號 傳曰 軍號所書處 有違常規 本院察處事 傳教矣. 卽爲坼見 則軍號兩字 當書於年月之下 此則書於年月之上 不免倒錯之失 當該堂上推考. 傳曰 允”.

15 『承政院日記』 英祖 13년(1737) 3월 7일, “備忘記 傳于金應福曰 今日軍號 只書軍號 不書其日 當該堂上推考”.

16 『承政院日記』 肅宗 2년(1676) 4월 1일, “備忘記 從前軍號之下 書以可字 乃是規例 而今者 兵曹參判鄭哲所書 落書可字 不謹甚矣 推考”.

17 『承政院日記』 顯宗 4년(1663) 6월 9일, “傳曰 近日軍號之字 頗類大 殊欠精敬 當該堂上 從重推考”.

군호는 매일 재가를 받아야 하는 기밀문서였으므로, 재계나 행행으로 인해 부재중일 때 왕의 허락에 따라 동궁이 직무를 대행하였다. 『속대전』 편찬 이전에 이루어진 국왕 부재 시 군호 재가 방식 논의는 현종 연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65년(현종 6) 4월 현종은 안질(眼疾)을 치료하기 위해 온양온천에 거동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군호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이때 여러 날의 군호를 미리 써서 겹면에 일자별로 표시하고 대내에 비치하였다가, 병조에서 평소처럼 신시에 계품하고, 겹면의 일자에 맞춰 표를 검사하여 반포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¹⁹ 1667년 4월의 온천 행행 때는 동년 1월에 7살의 나이로 책봉된 동궁이 대행하여 달자(達字) 도장을 찍어 내리도록 하였다.²⁰ 이를 통해 후계구조가 정립되어 왕세자가 책봉됨에 따라 변화되는 군호 재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군호 재가가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 출발일부터 도착일에 해당하는 날수 만큼 군호단자가 준비된다. 1687년(숙종 13) 10월 9일 장릉(長陵) 친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과주에 거동할 때 환궁일은 11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능행 하루 전인 8일에 군호를 미리 계하하여 승정원에 보관하도록 하며, 환궁 시간이 지체되면 매일 신시 업무에 해당하는 군호 재가를 할

18 『承政院日記』肅宗 10년(1684) 10월 25일, “備忘記 軍中凡事 務在嚴密 軍號二字 騎省堂上 必自親書 喉司亦不得坼見 蓋所以防奸也. 兵曹參議柳樞 書呈軍號 非止一再 其字畫之工拙 予已詳矣. 今此字畫 大異於前 決非老筆 故有所下問矣. 果爲倩人代書云 事之可駭 莫此爲甚. 柳樞罷職 莫重軍號 不可仍用宣泄之字 令他堂上 卽速改入”.

19 『承政院日記』顯宗 6년(1665) 4월 9일, “上曰 至於軍號事 極爲難處 何以則可得便當耶? 許積曰 此事極爲難處. 故臣每與諸大臣 多般相議 而尚未得其便好之策矣. 上曰 累日軍號豫爲書置 而其軍號紙外面 各表其某日某日 以此留置于內 舉動後 自兵曹 每日申時後 啓稟受出 而自內亦看檢其外面排日之表 仍下于兵曹 以爲頒布之地 則庶無差誤之弊矣. 許積曰 聖教至當 軍號則依此定奪”.

20 『承政院日記』顯宗 8년(1667) 4월 9일, “座目缺 兵曹判書金佐明所啓 監軍巡將軍號落點等事 何以爲之耶? 依上年例爲之耶? 上曰 依爲之 而軍號則達於東宮 踏達字以下 中日落點亦爲出入 可也”.

수 없으니, 9~11일까지 3일분의 군호를 준비하였다.²¹ 『노상추일기』에는 1798년(정조 22) 현릉원 기신제로 재계함에 따라 5월 12일 이후부터 21일까지 군호가 미리 낙점되어 규례대로 거행되고 있다고 한 것을 통해 기일보다 앞서 군호 재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²

이상과 같이 현종, 숙종 연간에 이루어진 군호 재가 선례가 있으므로, 1744년(영조 20) 『속대전』 편찬을 위해 법령을 정리할 때 영조는 ‘군호조(軍號條)’를 추가하도록 명하며, 동궁의 어가 수행 여부에 따른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명시하였다.²³ 한편 법전의 ‘군호’ 조목에서는 미리 재가받은 문서의 보관 장소를 병조로 규정하였으나, 여러 사례를 통해 대내에 보관하며 평시와 같이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속대전』 행순에는 군호 조항 외에도 무시로 야금 순찰을 하며(無時夜巡), 순찰하는 사람 간 군호 교환(行巡人受軍號)이 추가되어 있다. 야금 순찰은 수시로 이루어졌고, 입직군사 사이의 야금 확인 방식은 서로 마주쳤을 때 동시에 호창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숙종은 목소리를 낮추도록 전교를 내리기도 했다.²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731년(영조 7) 병조판서 김재로(金在魯, 1682~1759)가 각각 한 호(號)씩 답하여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몸을 숨겨 규찰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영조는 전례에 따라 호응하도록 명하였다.²⁵

21 『訓局臚錄』 1687년 10월 8일, “兵曹啓曰 … 初九日 初十日軍號 亦於今日內啓下 留置政院 臨時受出 十一日 還宮時 若或日暮 則軍號啓下 不無窘速之患 亦爲一體 前期啓下 留置政院 何如? 傳曰 允”.

22 盧尙樞, 『己未日記』 五月大 十四日辛未, “是夜軍號 以號軍二字頒下. 自十二日以後至二十一日齋戒 故落點省記與軍號 預爲點下 依例舉行”.

23 『承政院日記』 英祖 20년(1744) 11월 25일, “上命書軍號條曰 郊外動駕時 東宮不爲隨駕 則達于東宮 東宮若隨駕 則排日預爲啓下 置本曹”.

24 『承政院日記』 肅宗 4년(1678) 10월 1일, “傳曰 宮城內外巡羅軍 軍號相應之時 勿爲高聲事 分付兵曹”.

25 『承政院日記』 英祖 7년(1731) 9월 14일, “在魯曰 宗一以爲 軍號 所以嚴秘符驗之具 而近

순작 시 군호를 호응하지 못하면 해당 입직 군사는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한 범야인(犯夜人)으로 분류하여 곤장(棍)으로 처벌하였다.²⁶ 범야의 처벌은 위반 시간에 따라 수위에 차등을 두는데,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따르면, 초경부터 5경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초경(19~21시)은 곤장 10도, 2경(21~23시)은 20도, 3경(23~1시)은 30도, 4경(1~3시)은 25도, 5경(3~5시)은 10도에 해당하였다.²⁷ 곤장 횟수에 따라 죄질을 구분하면 3경에 체포된 범야인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고, 다음이 4경과 2경 순이며, 초경과 5경은 가장 낮다.

이처럼 경수(更數)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점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입직군사도 있다. 1727년(영조 3) 12월 17일 3경에 순청의 군사가 범야인을 잡았는데, 푸줏간(懸房)에서 경수만큼 뇌물을 받고 사사롭게 석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 혐의의 군사를 붙잡아 군호를 확인했더니 서로 통하지 않았다. 이로써 순작 업무도 해이한 것이 드러나 옥에 갇히며 야금 폐단의 본보기로 징벌을 받았다.²⁸ 이 밖에 군호 분배가 폐문 시간에

來高聲群唱 以致混雜 此後則巡更時 衛將所率更卒 切勿齊唱一號 所過更卒 各答一號 以爲相符之地 則可無亂雜之弊云矣. 上曰 闕內巡更之聲 若低微則反致寂寥矣. 在魯曰 宗一以爲部將巡邏 必於衛將出巡後 率更卒二人 落在衛將之後 留守數十步 而勿呼軍號 潛身窺察 如有可疑之人 加身上一敲 暗相符驗 一如軍中起更之法 而如有差錯 縛送該曹 似好云矣. 上曰 此則不然 必有掣肘之事矣. 昨年以後 無別監相通之事 終是有弊矣. 闕內所屬 驛問軍號 則雖兵曹書吏 亦何以知之乎? 衛將巡更後 部將稍落後巡更 則似好矣. 諸臣遂退出”.

- 26 『續大典』兵典 行巡, “城內外行巡牌將 軍士或相遇 問軍號 不通者 則以犯夜人捕治”.
- 27 『東國輿地備攷』(2) 漢城府 巡行, “犯禁夜行人 捕付隣近警守所 翌日各其營 決棍治罪【初更十度, 二更二十度, 三更三十度, 四更二十五度, 五更十度】”.
- 28 『承政院日記』英祖 3년(1727) 12월 27일, “今月十八日本廳四牌軍官劉萬祐提告內 去夜三更量 巡廳軍士一漢 執捉犯夜人 入於懸房 受賂私放 故所謂巡廳軍士處 先問軍號 則非但不通軍號 托以巡邏受賂 作挈之狀 隱諱不得 仍爲執捉 來告本廳 卽以犯夜人 例依更數決罪矣. … 此非但一書員之無罪受棍 而後弊所關 不可放倒 日後以如此之事 雖上司 至於本廳所屬 則依前成命 切勿擅自推治 更爲定式 而十八日 本廳被捉巡廳軍士 不通軍號 私自作挈之罪 亦令攸司囚禁嚴治 以懲後弊 何如? 傳曰 允”.

이루어지지 않거나 담당자의 직무 태만이 발견될 때는 처벌이 이루어졌다.²⁹ 『노상추일기』에는 늦은 시간에 사사로이 군호를 전달받으려다가 위장소 부장 대신 하인이 업무를 대신한 것이 드러나 연루된 관원이 태거당한 기록이 있다.³⁰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수록된 군호 관련 법령은 1785년(정조 9)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전체 수록되었고, 1865년(고종 2) 『대전회통(大典會通)』까지 전해진다. 한편 1870년(고종 7) 승정원의 업무를 정리한 『은대조례(銀臺條例)』에는 법전에 언급되지 않은 조항으로 “대상(大喪)을 당했을 때 전날에 계하한 군호를 공제(公除)까지 사용한다.”³¹는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대상은 왕과 왕비의 흉서이므로 흉례에 속하여 해당 기간 중 근신하며 공무를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국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성복 후 상기(喪期)에 해당하는 만큼 달수를 날수로 변경하는 이일역월(以日易月)에 따라 해당 기간 조의를 표하고 정무를 재개하는 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³² 공제 기간은 왕은 27일, 왕비는 내상(內喪)으로 13일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29 『承政院日記』 仁祖 3년(1625) 11월 15일; 『承政院日記』 仁祖 26년(1648) 11월 16일; 『承政院日記』 孝宗 1년(1650) 6월 1일; 『承政院日記』 景宗 3년(1723) 1월 14일; 『承政院日記』 英祖 1년(1725) 11월 1일; 『承政院日記』 英祖 3년(1727) 2월 27일; 『承政院日記』 英祖 20년(1744) 12월 28일.

30 盧尙樞, 『乙巳日記』 九月大 十一日丁巳, “北所是夜二更頭 張令監見汰出來 聞其事機 則北所部將 至南所 至暮閉門時 方受軍號于兵曹 而部將李顯邦 猝以食積氣塞 不得受軍號矣. 下人告于兵曹 兵曹草記 自上問其事由 下教汰去 南所衛將及兵郎降定 政院書員三名于使令 上意在南所衛將閉門前不得趁時舉行故也”.

31 『銀臺條例』 兵旻 「軍號」, “大喪時 以前日所下 限公除仍用”.

32 공제는 ‘공적인 일을 위해 복제를 벗는 것’을 의미하며, 『국조오례의』에서 공제에 대한 규정은 왕비가 자신의 부모를 위해 자취 부장기에 따라 1년 동안 상복을 입을 때 한 달을 1일로 계산하여 13일이 지나면 상복을 벗는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새로 즉위한 국왕이 공무를 시작할 때는 27일이 지나면 정무를 보았는데, 이때는 상복을 벗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시작하는 시점을 가리키며, 공제와 상복이 분리되었다. 이육,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서울: 민속원, 2017), 121쪽 요약.

표2- 『만기요람』과 『승정원일기』 사례로 재구성한 조선 후기 군호 전달 체계

관직	초기(상부 보고)			결재	계하(하부 전달)			
	병조 입직당상	병조 낭관	승정원 주서, 승지		국왕	승정원 승지	병조 낭관	각처 입직장교
업무	군호 작성, 봉함, 수결	승정원 전달	봉진	군호 확인 후 계자인	영명 출납	분배용 군호 작성	군호 수거, 반포	순작 시 군호 활용

실례는 본고 Ⅲ장의 정조 국장 중 군호 재가 양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의 군호 초기와 계하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병조의 한 부서인 생기색(省記色)의 입직 당상관이 매일 신시에 직접 작성한 군호를 봉함 후 수결하면, 낭관이 국왕에게 바치고 결재를 받는다. 정무가 길어질 때 중간에 군호 계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1726년(영조 2) 주서가 올린 군호를 동부승지 이정소가 탑전(榻前)에 봉진하고, 영조가 군호를 확인하여 봉투에 계자인을 찍은 뒤 도승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³³

결재를 받은 군호는 꺾문을 잠그는 시간에 어람용 2장을 제외하고 27장을 제작하여 궁궐 안팎의 관청과 영에 분배한다. 수신처는 병조판서·도총부(都摠府)·금위대장·어영대장·호위대장(扈衛大將)·금군대장·좌포도대장·우포도대장을 비롯하여 각 처의 부장·수문장·초관 등 27곳이며, 입직 담당자가 직접 받으러 갔다. 만약 국왕이 교외에서 유숙할 때는 3장을 추가로 제작하여 유도소(留都所)·수궁대장(守宮大將)·총융청 유진(留陣)에게 1장씩 배부하였다.³⁴

33 『承政院日記』 英祖 2년(1726) 12월 22일, “廷嬪進伏曰 軍號時刻已值 出遣史官受來 何如上曰 依爲之. 假注書申晚出去 持軍號封入 授廷嬪 廷嬪進呈于榻前 上親拆踏啓字 還下都承旨”.

34 『萬機要覽』 軍政篇(2) 兵曹各掌事例 省記色, “關門下鑰時, 頒布於關內外各司 各營【軍號凡二十九張. 御覽二 兵曹判書— 都摠府— 禁衛大將— 御營大將— 扈衛大將— 禁軍別將— 左捕將— 右捕將— 弘化門哨官— 建陽門把摠— 集賢門哨官— 銅龍門哨官— 崇智門局出身— 扈衛別將— 局別將— 內直哨官— 內三廳— 東所— 西所— 南所— 北所— 漢旅— 衛將

입직 위장은 당직을 설 때 순작에 사용되는 위장패(衛將牌)를 받게 되는데, 그 형태는 둥글고 각 면에 위장(衛將)과 화인(火印)이 찍혀 있으며, 좌우로 쪼개진 패는 왼쪽에 '巾', 오른쪽에 '巾'로 표시하였다.³⁵ 위장패에 쓰인 글씨로 인해 『노상추일기』에는 '위자패(衛字牌)'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때에 따라 대내에 위자패를 올리고 한쪽을 받아오거나 교대하면서 전임자에게 전달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Ⅲ. 무관 노상추의 근무 경력과 군호 기입 양상

노상추(盧尙樞, 1746~1829)는 경상도 선산도호부(현재의 경북 구미시 선산읍)를 중심으로 세거하였던 조선후기 무관으로, 관직과 가정에서의 경험을 일자별로 기록한 68년간의 생활일기인 『노상추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일기의 서술 시기는 청년기인 18살부터 노년기인 84세까지 해당하여 무과 응시부터 급제, 관직 제수, 은퇴에 이르는 무관직으로서 생애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 관료 생활을 하면서 오위장(五衛將) 6회, 겸사복장(兼司僕將)·우림위장(羽林衛將) 등 금군장(禁軍將) 3회, 금위영과 어영청의 천총(千摠) 각 1회, 어영청 기사장(騎士將) 1회 등 입직과 야금 순찰에 관계된 관직은 12차례 역임한 이력을 가졌다는 점도 주목된다.³⁶

所一 外兵曹一 北營一 左巡廳一 右巡廳一 幸行經宿時 三張加磨鍊 留都所一 守宮大將一 揔戎廳留陣一】”.

35 『燃藜室記述別集』(13) 政教典故 符璽: 『銀臺條例』 兵旂 符信.

36 노상추는 1784년 12월 무검선전관으로 첫 관직을 맡았고, 이후 진동만호(종4품), 훈련원주부(종6품), 당상선전관(정3품)을 거쳐 삭주부사(종3품), 홍주영장(정3품), 강화중군(정3품)을 역임했으며, 1813년(순조 13) 7월 가덕첨사(종3품)를 끝으로 28년의 관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그중 외직에 근무한 기간이 7년 11개월이고, 중앙에

『노상추일기』에는 입직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입직 장소, 야금 순찰 시간, 당일의 군호가 함께 정리되어 있다. 군호는 군사기밀문서의 하나로서 외부 유출은 법령으로 금지되며, 당일 야금 순찰과 관련된 사람만 공유한다는 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기는 그날의 일과와 개인의 생각 등을 정리하는 내밀한 문서이기 때문에 기밀문서가 가진 보안의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군호를 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가 갖는 가치가 매우 높다.

『노상추일기』에 군호가 처음 언급된 것은 1790년 6월 24일로, 노상추는 순장(巡將)에 낙점되어 순청에서 근무하였다.³⁷ 이날은 조선 23대 왕인 순조가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로 종묘에 원자 탄생을 고하며, 사면령을 반포하고 야간통행금지도 해제되었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큰 행사가 있는 날의 군호는 '무도(舞蹈)'였는데, 단순한 형태의 춤추기가 아닌 왕실의례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행하는 축수 인사에 가깝다.³⁸

당시 노상추는 갑산부 진동 만호의 외직을 마치고 훈련원 주부로 임명된 때였고, 특히 4월에는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의 교지를 받는 등 은자(恩資)를 얻은 해였다.³⁹ 이에 따라 6월 22일 병조판서가 순장으로 초계하였던

서 역임한 관직 중 청요직은 무검선전관 2년 6개월과 당상선전관 1년에 해당하며, 그 밖에 오위장과 금군장 등에 역임한 기간은 6년 정도에 해당한다. 정해은, 「조선 후기 무관 노상추의 중앙 관직 생활과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73권(2019), 198~200쪽 참조.

37 盧尙樞, 『庚戌日記』 六月小 二十四日癸酉, “是日元子誕降初七日也。告廟頒赦 而百官陳賀堂上則無論 文武有職無職 一併入參。嶺南赦差官張友【東源】下去。是日巡將落點 余以時服詣闕受牌 出次巡廳。是日弛禁 都民張樂 大衢達夜不絕 軍號則舞蹈”。

38 『수서』 가례조에 처음 등장하는 舞蹈는 정조·동지 조하례에서 관료사대부가 황제 예찬 의식으로 행하는 拜制이며, 당송을 거치며 의례적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황제에 대한 모든 배례를 무도례로 행하도록 의주에 제시되었으나, 조선 초 僭禮라는 이유로 논쟁 끝에 폐지되었다. 유현주, 「『고려사』 「禮志」 嘉禮를 통해 본 고려시대 國俗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0), 27쪽 요약.

것으로 추측되며,⁴⁰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큰 행사가 있는 날에 야금 순찰을 지휘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기는 1790년부터 1811년 사이에 중앙 순작 관직을 맡았던 12년간 422건의 군호를 포함하고 있다. 군호 기록 시기는 중앙 관료 생활 중 순작의 업무를 담당했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입직 업무를 맡았던 기간의 군호가 모두 기입된 것은 아니며, 임시직으로 순장에 낙점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관직별 입직 횟수와 군호 기록 수량과의 관계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일기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 내용을 검토할 수 없는 한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1804~1805년 오위장 근무 시기가 있다. 군호 기입 양상을 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위장천총으로 근무했던 1800년은 97건으로 가장 많고, 1809년 68건, 1808년 62건의 순서이다.

전체 422건 중 군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02건이며, 18건은 누락, 2건은 문서 훼손으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하다. 군호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경우는 “是夜軍號以□□二字頒下.”라고 하여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노상추일기』에는 누락 이유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일기에 업무일지를 남길 정도로 엄밀한 관리를 하였던 점에서 군호 누락은 고의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⁴¹

39 盧尙樞, 『庚戌日記』 四月大 初九日己未, “兵曹下人來納褒啓回啓文書 見之則果加資事判下於昨日 而今日政折衝教旨來到 得玉圈懸鬚 一朝堂上之稱 惶感無之 而身計未免狼狽 奈何”; 『承政院日記』 正祖 14년(1790) 4월 11일, “兵批 判書李珪進 參判柳誼入直 參議李命勳 參知金履成病 右副承旨尹行任進. … 鍊主簿盧尙樞今加折衝 …”.

40 盧尙樞, 『庚戌日記』 六月小 二十二日辛未, “聞兵判以余入巡將抄啓中”.

41 『노상추일기』에서 야금 순찰과 관련된 업무 기록은 매일 차이를 보이지만, 순작 시작과 종료 시간, 위자패 인수인계, 타 所에 입직한 사람의 직위와 이름 등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군호 누락에 담긴 고의성은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군호를 잊어버린 것이고, 둘째는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입할 수 없었던 것이고, 셋째는 피휘와 관련될 수 있다.

표3- 『노상추일기』 중 군호 기록 양상과 중앙 순작 관직 근무 기간의 관련성⁴²

시기	군호		관직	근무 기간
	기록 시기	수량		
1790년(정조 14)	6. 24.~12. 25.	5건	훈원원주부	-
1791년(정조 15)	1. 12.~6. 4.	53건	五衛將	1791. 1. 7.~1791. 6. 7.
1792년(정조 16)	7. 5.~11. 3.	42건	五衛將	1792. 6. 22.~1792. 11. 3.
1796년(정조 20)	8. 17.~12. 27.	23건	五衛將	1796. 12. 21.~1797. 3. 10.
1797년(정조 21)	-	0건	兼司僕將	1797. 3. 10.~12. 26.
1798년(정조 22)	5. 1.~12. 18.	31건	羽林衛將	1798. 6. 21.~1799. 7. 2.
1799년(정조 23)	1. 22.~6. 20.	28건		
1800년(정조 24)	2. 16.~12. 14.	97건	五衛將千摠	1800. 3. 8.~12. 22.
1803년(순조 3)	12. 23.~12. 29.	7건	御營廳千摠	1803. 12. 21.~1804. 2. 13.
1804년(순조 4)	-	0건	五衛將	1804. 2. 13.~12. 3.
1805년(순조 5)	-	0건	五衛將	1805. 6. 5.~7. 28.
1808년(순조 8)	윤5. 22.~12. 09.	62건	御營廳騎士將	1808. 윤5. 19.~1809. 2. 28.
1809년(순조 9)	1. 3.~6. 21.	68건	五衛將	1809. 2. 28.~6. 19.
1810년(순조 10)	12. 28.~12. 30.	3건	羽林衛將	1810. 12. 27.~1811. 2. 2.
1811년(순조 11)	1. 19.~1. 21.	3건		
총		422건	(기입 402건, 누락 18건, 식별 불가 2건)	

일기 내용 중 군호가 포함된 경우는 대체로 해당 날짜에 작성되었다. 그러나 일기 작성 시기는 절대적으로 당일 정리를 원칙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1791년 4월 17~18일과 같이 양일의 군호가 뒤바뀌어 정정 표기를 하거나,⁴³ 1800년 5월 29일 일기에는 3일 전인 5월 26일의 업무와 군호를 기록하기도 하였다.⁴⁴

42 근무기간은 정해은, 「조선후기 무관 노상추의 중앙 관직 생활과 그 의미」, 제73권 (2019), 199쪽 참조.

43 盧尙樞, 『辛亥日記』 四月小 十七日辛酉, “是夜軍號以曰雨二字領下 行巡如昨”; 盧尙樞, 『辛亥日記』 四月小 十八日壬戌, “是夜軍號 以試藝二字領下 行巡如昨 軍號如昨換書矣”.

44 盧尙樞, 『庚申日記』 五月大 二十九日庚戌, “二十六日巡將 余進一所 徐碧潼【有鳳】進二所

군호는 모두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89종에서 일회성 단어는 234건이며, 2회 이상 사용된 것은 55건에 해당한다. 그중 ‘중일(中日)’은 18건으로 빈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순작(巡綽)’ 12건, ‘빈대(賓對)’ 6건, ‘순경(巡更)·조순(調順)·풍징(豐徵)’ 5건 순이다. 3회 이상 사용된 군호는 크게 무관 업무, 날씨, 농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관 업무에서 순경·순야(巡夜)·순작 등은 야금 순찰, 사방(射放)·중일(中日)은 무예 시험, 전례(展禮)·전성(展誠)은 왕실의례로 인해 궁 외로 임금의 거동이 이루어질 때 호위와 관계된다.

특히 중일시사(中日試射)는 육십간지로 표기하는 간지기일법(干支紀日法)에서 자(子), 묘(卯), 오(午), 유(酉)에 해당하는 날 입직군사를 대상으로 활쏘기 시험을 하는 것이다. 내시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승진이 되기도 했지만, 규정만큼 적중하지 못할 때는 선전관에서 훈련도감 군졸로 강등되기도 하였다.⁴⁵ 노상추는 1792년 11월 2일 오위장 근무 당시 정조의 참관 아래 춘당대에서 시행된 중일시사에 참여했다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튿날 전교에 따라 가설된 선전관 의망단자에 이름을 올렸고, 당상 선전관에 낙점되었다.⁴⁶

監軍兵佐韓【翼鎮】進一所 兵佐李在璣進二所. 其夜余巡宮城. 是夜軍號以□□二字旗下”.

45 『正祖實錄』 20년(1796) 11월 21일, “宣傳官李鼎會試射 未滿式 命降定訓局軍 該大將 更試柳葉箭十巡 得十五中後草記”.

46 『正祖實錄』 16년(1792) 11월 2일, “御春塘臺 行官弓中日試射”; 『正祖實錄』 16년(1792) 11월 3일, “教曰 昨於官弓中日試記 見五衛將盧尙樞 問于曾經兵判者 卽兵使啓禎之孫云. 渠祖之事蹟雖知之 其孫之爲誰某 未之知焉 每欲尋用而未果. 渠名之入於今日試記 在渠可謂有數存焉. 昨夕招問渠祖 果然是守門將時舉職 超擢爲副薦兵使者. 況渠祖之守門將除拜 在古壬子至月 而渠名之覺得於今壬子至月 亦可謂奇事. 然其人品凡百之如何 姑未見之 令兵判招見後果可堪 堂上宣傳官加設擬入”; 盧尙樞, 『壬子日記』 十一月小 初三日戊戌, “至暮更爲下教 當夜口傳差出 至三更而堂上宣傳官擬入落點 感泣之懷 此所謂天地罔極之恩教也”.

표4- 『노상추일기』에 기록된 2字 군호 289종의 단어와 사용 빈도⁴⁷

횟수	군호	건수
1회	稼登, 恪勤, 柑橘, 感慕, 感時, 甘露, 康年, 康寧, 講對, 康復, 開霽, 虔誠, 建陽, 更漏, 慶忭, 慶野, 警嚴, 慶月, 慶祝, 警飭, 拱聚, 較藝, 菊製, 圭壁, 圭壁, 謹嚴, 勤政, 勤學, 禁夜, 禁直, 祈永, 其穫, 其獲, 祈洽, 吉良, 吉月, 樂育, 納稼, 臙近, 納禾, 來古, 農桑, 大吉, 對越, 大音, 大政, 都俞, 導和, 東作, 冬藏, 同熏, 萬億, 望雲, 麥長, 鳴蜩, 舞蹈, 默禱, 文武, 物茁, 眉壽, 發生, 魑虐, 放榜, 芳春, 白雪, 百五, 法講, 報謝, 普洽, 祓禊, 孚感, 分更, 朋來, 三五, 西成, 舒長, 星駕, 誠敬, 誠禮, 誠慕, 星昴, 盛暑, 成熟, 星鳥, 細潤, 召對, 宵中, 洒雨, 壽綱, 壽星, 壽域, 肅敬, 宿衛, 肅靜, 詢謨, 巡城, 巡衛, 純蝦, 始耕, 時若, 時雨, 試才, 試製, 時寒, 時行, 新涼, 深嚴, 十萬, 鴈賓, 夜禁, 夜漏, 野潤, 陽坡, 陽煦, 如在, 延祥, 煙月, 靈雨, 禮成, 溫風, 日雨, 雨粟, 元宵, 月圓, 劉笏, 猷詢, 有秋, 輪對, 潤發, 應鍾, 凝寒, 二五, 肄儀, 履, 齋正長, 二八, 日舒, 日永, 日雨, 日長, 日中, 臨陽, 立夏, 長養, 齋敬, 齋夕, 齋餘, 展慕, 節宣, 丁東, 正冬, 貞元, 定中, 靜鎮, 征輶, 霽景, 齋明, 除暑, 眺朏, 調習, 條炎, 調和, 鍾漏, 種麥, 畫講, 籌對, 周正, 周迴, 周洽, 中甸, 中元, 中秋, 進鏡, 晉對, 振勵, 緝熙, 澄晴, 鑿冰, 暢月, 滌場, 瞻漢, 晴佳, 清禁, 晴吉, 晴涼, 清蟬, 晴溫, 晴薰, 初庚, 初旬, 初秋, 推廣, 秋涼, 秋成, 秋陰, 秋晴, 祝萬, 春牛, 春分, 春溫, 春意, 春晴, 春夏, 春寒, 治平, 飭禁, 七夕, 泰來, 判堂, 沛然, 霈然, 平分, 楓菊, 風樹, 豐熟, 風泉, 豐泰, 恒升, 號軍, 呼應, 紅綠, 花信, 歡慶, 懽慶, 黃華, 孝思, 候鴈, 暄清, 喜德, 喜雪, 喜霽, 喜晴	234건
2회	康吉, 講製, 冀澍, 燈夕, 萬安, 望雨, 麥秋, 攀號, 勃興, 誓戒, 宵永, 小寒, 收成, 雲行, 月吉, 油然, 日吉, 齋明, 載績, 展拜, 製講, 除夕, 次對, 添線, 清道, 清明, 清嚴, 晴寒, 清和, 和豐, 薰風, 興雲, 喜雨	33건
3회	軍號, 瑞雪, 巡夜, 展禮, 展誠, 臻安, 清朗, 清齋, 晴和, 好雨, 禾茂, 花辰, 和暢	13건
4회	射放, 試藝, 晴肅	3건
5회	巡更, 調順, 豐徵	3건
6회	賓對	1건
12회	巡綽	1건
18회	中日	1건

군호로 쓰인 단어는 해당하는 날의 일정과 밀접하게 관계되지만, 전일이 나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행사와도 관련된다. 예컨대 ‘중일(中日)’은 반드시 해당 간지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1799년 1월 23일 임오일의 군호였던 ‘중일’은 이튿날인 1월 24일 계미일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군호 289종

47 일자별 군호 목록은 부록 참조.

의 활용 빈도를 살펴보면 같은 달에 2차례 이상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거나, 연속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동일 군호의 반복 사용은 1800년(정조 23)에 주로 나타나는데, 1800년 4월에는 '기주(冀澍)'와 '흥운(興雲)', 5월에는 '군호(軍號)'가 2회 쓰였다. 6월 21~23일에는 '진안(鎭安)'이 3일 연속으로 나타나고, 7월 10~12일에는 '화무(禾茂)'가 반복된다.

같은 달에 군호의 단어가 연속 적용된 경우는 최고 결정권자인 왕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조는 1800년 6월 10일 이전에 중기가 발생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지만,⁴⁸ 점차 병세가 악화되어 6월 28일에 승하하였다. 정조 홍서 이후인 7월 11일에 노상추는 선대왕이 내린 군호를 사용 중이라고 하여, 대상(大喪) 기간 중 군호 시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자료1-『庚申日記』 1800년 7월 11일

어제 군호는 '禾茂' 두자로 내리셨는데, 오늘 밤 군호도 '禾茂' 두 자다. 이 군호는 선대왕께서 내리신 것인데 공제(公除) 전에는 옛 군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때 주상께서 공제 전에는 정사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입직 급군장 및 수문장, 입직 훈련도감·어영청 두 군영의 장관, 순장, 감군의 낙점 거행에 대해서 아뢰지 못하므로 궐내의 입직에 낙점된 사람은 모두 계속해서 32일 동안 번을 서고, 순장과 감군도 계속해서 패(牌)를 받아야 하는 날이 32일이라고 한다.⁴⁹

48 『正祖實錄』 24년(1800) 6월 14일, “上 自是月旬前 有癘候 連進傳貼之劑 久未奏效 召見內醫院提調徐龍輔于便殿”.

49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노상추 일기』 7(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9), 347~348쪽; 盧尙樞, 『庚申日記』 七月大 十一日辛卯, “昨日軍號以禾茂頒下 今夜軍號亦禾茂二字 是軍號即先大王所頒者 公除前仍用舊號. 此時主上 公除前不爲視事 故入直禁軍將及守門將 入直訓御兩營將官 巡將監軍之落點舉行者 皆不得入啓 故關內入直落點者 一併仍番三十二日 巡將監軍亦仍牌三十二日云. 巡監之仍牌者 一所巡將柳相燁 監軍宣傳官李景德 一所巡將申光夏 監軍宣傳官李晞彬 禁軍將李運春. 是日大臣率百官庭請 大殿殿宮 復常膳 三啓乃勉副”.

6월 28일 정조 홍서 당일 『승정원일기』에는 오시(午時)에 병세가 위독해졌고, 유시(酉時)에 상대점(上大漸)이라 하여 왕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⁵⁰ 매일 신시에 거행되는 군호 계하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노상추일기』 중 정조 홍서 전후의 군호를 살펴보면 1800년 6월 26일의 군호는 ‘청선(淸蟬)’이었고, 6월 27일 군호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맥락상 ‘화무(禾茂)’로 추정된다.

표5- 『노상추일기』 중 정조 홍서 전후 군호 양상(1800년 6~7월)

날짜	군호	비고
6. 1.	月吉	
6. 2.	時行	
6. 10.	-	정조 종기 치료
6. 16.	中日	정조 병세 악화
6. 21.	臻安	
6. 22.	臻安	
6. 23.	臻安	
6. 25.	豐徵	
6. 26.	淸蟬	
6. 27.	禾茂(추정)	
6. 28.	-	
7. 4.	-	成服, 嗣位
7. 10.	禾茂	
7. 11.	禾茂	
7. 12.	禾茂	
7. 22.	條炎	
7. 30.	-	

50 『承政院日記』 正祖 24년(1800) 6월 28일, “庚申六月二十八日午末 上御便殿. … 時上候已危劇 晚秀請召洪旭浩·姜最顯診候 上許之. … 下番翰林洪爽周 書上大漸三字 假注書呂東植奉出 周示于外廷 乃酉時也”.

순조는 국장으로 인해 정무 중지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정조가 마지막으로 계하했던 군호를 성복 후 27일 공제에 따라 7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된다. 자료1에서 노상추가 입직 낙점자, 순장, 감군의 업무가 32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홍서 당일부터 공제일까지 32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공제는 7월 30일에 이루어졌으나, 군호는 7월 22일 ‘조염(條炎)’으로 계하하여 “대상을 당했을 때 전날에 내려준 군호를 공제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한다.”⁵¹는 규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IV. 생활상이 반영된 조선후기 군호 작명

조선시대 군호는 야금 순찰에 활용되는 피아식별용 암구호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단어를 작명하는 방법으로 보안 강화에 힘썼다. 특히 군호는 가까운 시일과 관계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적절성을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때를 기다려 사용하였다.⁵² 이로 인해 왕실 행사 및 업무와 관계된 단어를 제외하면 그날의 날씨, 농사, 월력, 명절 등을 소재로 활용하며 당일의 생활상이 반영되었다.

1. 날씨: 비와 눈, 바람에 대한 관찰과 기원이 담긴 암구호

날씨는 인간의 생활과 작물의 재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으로 매일의 기상을 기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1 『銀臺條例』兵旻 軍號, “大喪時 以前日所下 限公除仍用”.

52 『承政院日記』正祖 즉위년(1776) 10월 7일, “傳于金鍾秀曰 此軍號 差待月望而用之 更爲修入”.

날씨를 익히는 방법은 오감을 통한 관찰이 주로 활용되었다. 먼저 눈으로 햇빛의 정도를 가늠하는 ‘화창(和暢)’, ‘춘청(春晴)’, ‘추청(秋晴)’, ‘일서(日舒)’ 등과 구름을 살펴 날씨의 전환을 파악하는 ‘개제(開霽)’, ‘희청(喜晴)’, ‘제경(霽景)’, ‘추음(秋陰)’ 등이 있다. 달 모양 변화를 관찰하여 보름달이 뜨는 15일에 ‘월원(月圓)’, ‘창월(暢月)’이 군호로 쓰이기도 했다. 피부로 체득하는 것은 바람의 세기와 기온의 변화에 관계되며 ‘추량(秋涼)’, ‘온풍(溫風)’, ‘훈풍(薰風)’, ‘제서(除暑)’, ‘응한(凝寒)’ 등 기온에 관련된 것이다.

눈과 관련된 군호는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 나타나며, ‘서설(瑞雪)’, ‘백설(白雪)’, ‘희설(喜雪)’ 등 색깔, 상서로움과 기쁨을 뜻하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처럼 겨울철 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가을보리 농사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듯이 겨울철 눈은 농작물의 보온과 수분 보충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보리 작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732년(영조 8) 2월 12일에 서울의 보리씨가 좋지 못한 때 내린 눈을 아름다운 징조라고 여기며 군호로 봉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조는 봄에 내린 눈이 파종 직후인 겨울에 내린 눈만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⁵³

가을보리에는 강설(降雪)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벼의 풍년에는 강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3~4월에 맞춰 비가 내려주어야만 파종을 할 수 있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주는 비는 ‘호우(好雨)’, ‘시우(時雨)’, ‘영우(靈雨)’라고 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구름만 바라보며 ‘망운(望雲)’, ‘운행(雲行)’, ‘망우(望雨)’라 하여 비를 기다렸다. 1809년(순조 9)

53 『承政院日記』英祖 8년(1732) 2월 13일, “在魯更端曰 昨雪 爲休徵云矣. 上曰 昨見軍號 意謂過藉矣. 此雪 果利於年事耶? 在魯曰 雪來即融 最有益於牟麥云 牟麥 非但民命所關 卽國命所關 豈不可幸乎? 趙錫命曰 嶺南麥苗甚好云 而京則不然 頗以爲慮矣. 今既雨雪 應有生意矣. 上曰 春雪終不如冬雪矣. 在魯曰 然矣”.

6월 4일에는 '발학(魘虐)'이라고 하며 가뭄이 극심한 상황이 드러나는데,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기우제를 거행할 정도로 대기근이 발생한 시기였다. 당시 『노상추일기』의 날씨를 살펴보면 맑은 날과 흐린 날씨의 연속이었고, 5월 22일에 비가 내리기는 했으나 해갈에는 부족한 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6- 1809년 대기근 당시 기우제 봉행과 군호의 연관성⁵⁴

날짜	기우제 봉행	군호	『노상추일기』 중 날씨 기록
5. 14.	① 三角山·木覓山·漢江	-	陽
5. 16.		默禱	陽
5. 17.	② 龍山江·楮子島	望雲	陽熱, 午後雲陰
5. 18.		雲行	朝雲陰
5. 20.	③ 南壇·雲祀壇	-	陽
5. 22.		祈洽	陰而南風, 雨意不霽
5. 23.	④ 社稷·北郊	-	朝陰風止, 至午暘. 昨今兩日
5. 24.		油然	陽, 自午雲陰, 有雨氣者然
5. 26.	⑤ 宗廟	-	陽
5. 28.		對越	陽
6. 3.	⑥ 三角山·木覓山·漢江 : 沈虎頭	-	朝陰晚陽
6. 4.		魘虐	朝陰晚陽
6. 5.		圭璧	朝陰
6. 6.	⑦ 龍山江·楮子島	-	早霧朝而穿陽, 又雲
6. 9.	⑧ 南壇·雲祀壇	-	朝陰暘晚雲暘
6. 10.	⑨ 南壇: 親行	-	陽而風從西來
6. 13.		勃興	雲陰或雨洒
6. 17.		洒雨	陰自辰時始雨, 終日大注, 達夜不正
6. 21.		報謝	雲陰
6. 22.	報謝祭(親行 南壇 → 攝行 宗廟) ⁵⁵	-	雲陰

54 기우제 봉행 일지는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참조.

55 『承政院日記』 純祖 9년(1809) 6월 19일, “李好敏 以禮曹言啓曰 南壇報謝祭 不多日內擇日 親臨磨鍊可也事 命下矣. 卽今日官池景泌推擇 則今六月二十二日 二十五日俱吉云 以何日定

1809년 거행된 1~8차 기우는 1704년(숙종 30) 개정된 기우제 거행 장소 12곳의 순서에 따랐으며,⁵⁶ 친행 9차 기우는 북교와 모화관(慕華館) 연못이 아닌 남단에서 진행하여 장소에 변화가 있다. 『노상추일기』에 따르면, 순조는 6월 10일 묘시(卯時, 오전 5~7시)에 창덕궁을 나와 남단의 막차에서 재계하고, 한밤중인 4경(오전 1~3시)에 기우제를 올렸으며, 제사를 마친 뒤 묘시에 환궁하였다. 기우 의례 도중 가랑비가 내리더니, 오시(午時)에는 몇 식경 동안 비가 내려 하천에 물이 넘쳤고, 초경에도 비가 쏟아지자 노상추는 임금의 정성스러운 기도에 감응이 일어난 것이라고 감탄하였다.⁵⁷ 이날의 비로 해갈이 이루어지자 6월 22일 종묘에서 섭행 보사제(報祀祭)를 지냈고, 이에 따라 전일의 군호는 ‘보사(報祀)’로 쓰였다.⁵⁸

行乎? 敢稟。傳曰 以二十五日爲之”; 盧尙樞, 『己巳日記』 六月小 二十一日庚戌, “南所入直。金大宅以明日宗廟報謝祭 守門將劃出云 故余乃代入直”。

56 『肅宗實錄』 30년(1704) 6월 26일, “改定祈雨祭次第。初次三角山 木覓山 漢江 遣三品官, 再次龍山江 楮子島 遣宰臣 三次風雲雷雨山川零祀 遣宰臣 四次北郊 遣宰臣 社稷 遣重臣, 五次宗廟 遣重臣 六次三角山 木覓山 漢江 沈虎頭 遣近侍 七次龍山 楮子島 遣重臣, 八次風雲雷雨山川零祀 遣重臣 九次北郊 遣重臣 慕華館池邊蜥蜴童子 遣武臣嘉善 閭閻屏柳 十次祀稷 遣大臣 慶會樓池邊蜥蜴童子 遣武臣嘉善 十一次宗廟 遣大臣 春塘臺池邊蜥蜴童子 遣武臣嘉善 閉南門開北門 遷市 十二次五方土龍祭 楊津 德津 五冠山 紺岳 松岳 冠岳 朴淵 禾積淵 渡迷津 辰巖焚柴 皆令本道設行”。

57 盧尙樞, 『己巳日記』 六月小 初十日己亥, “是日卯時 大駕出敦化門 崇禮門 詣南壇幕次齋宿。侍衛百官 散齋松林下 暴陽中 侍立諸臣 謹敬齊肅。至日沒西霞似紅而仍黑 恐是雨徵 至初更雲滿青天及四更風止已久 雨意漸生 及至親祀未畢 細雨油然而下 侍臣百官 皆沾濕冠服 祭畢而罷漏乃下。百官退出 既明而大駕還宮 時已卯矣。城外之雨 漚塵而已 城內之雨 甘露數頃云。旣退旅次 日氣猶薰 至午時雲合雨從 西方而下 大注數頃 川渠漲流 而日沒及昏 月明無風 黑雲掩月 至初更雨注 又始川漲而止 聖上之誠禱 靈應之速 眞所謂公私之慶幸也”。

58 『承政院日記』 純祖 9년(1809) 6월 20일, “傳于韓永達曰 南壇報謝 既命親享 而今筵大臣 雖以前例之絕罕爲言 但攝行圭璧 莫如躬將 故難於允從 更思之 暑炎郊野 百官軍兵之冒霖經夜 亦甚可悶 報謝祭更以二十二日攝行磨鍊 凡係致齋祭物等節 益加申飭”。

2. 농사: 파종과 수확, 24절기를 활용한 암구호

농본주의를 제창했던 조선은 농사를 국가의 통치 사상으로 여기며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중시하였다.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농경 사회에서 작물의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때 작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군호로까지 적용되어 농사철에 따라 농사일의 동태를 살펴서 때에 맞는 암구호로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농사와 관련된 제반 군호는 월령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1월에는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아침 해를 보고 날씨를, 저녁 달을 보고 풍년을, 윗가락으로 운수를 점치는 등 천지인(天地人)의 한 해를 예측하는 행사가 있었다.⁵⁹ 따라서 정월대보름 전날인 1791년 1월 14일에 ‘풍태(豐泰)’라고 하여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같은해 1월 27일에는 ‘시경(始耕)’이라 하여 농사 시작에 임하여 논밭을 가는 경작 행위를 단어로 사용하였다.

1791년 3월 24일에는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에 관계된 ‘농상(農桑)’이 사용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길례의 종류로 왕과 왕비가 농사짓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일에 앞서 농상을 관장하는 선농신과 선잠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친향선농의(親享先農儀)’와 ‘향선농섭사의(享先農攝事儀)’ 등 친림과 섭행 중사(中祀)는 모두 경칩 뒤에 오는 길한 해일(亥日),⁶⁰ ‘향선잠의(享先蠶儀)’는 계춘(季春)에 길한 기일(己日)

59 尹愔, 『無名子集』(3) 詩 「(上元記故事) 又記東俗 四十六韻」, “里閭何所事 俗尚又堪論 厚薄徵宵月 陰晴卜曉暉 迭呼兒賣暑 豫備僕修藩 嚼腫粟生響 治蠶酒不渾 豎竿象積築 樹樹指豐蕃 擲杷三看繇 … 天方吐素魄 人盡待黃昏 指點談禾麥 虔誠願子孫 羅拜陟山園”.

60 『世宗實錄』 五禮 吉禮 「親享先農儀」, “時日 書雲觀前一月 具時日【驚蟄後吉亥】. 報禮曹 禮曹啓聞散告 攸司隨職供辦”; 『世宗實錄』 五禮 吉禮 「享先農攝事儀」, “時日 書雲觀前一月 具時日【驚蟄後吉亥】. 報禮曹 禮曹啓聞 散告攸司 隨職供辦”.

을 택하게 된다.⁶¹ 경칩은 양력 3월 5일, 계춘은 맹춘과 중춘을 잇는 늦봄을 이르는 말로 음력 3월의 이침에 해당하여 의례가 거행되는 시기에 맞춰 군호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는 여문 곡식을 모아서 들이는 가을걷이와 관련된 단어로 '성숙(成熟)', '풍숙(豐熟)', '서성(西成)', '가등(稼登)', '추성(秋成)', '수성(收成)' 등이 사용된다. 한편 곡식 수확과 함께 파종이 시작되는 작물로는 보리가 있다. 『노상추일기』에 나타나는 군호를 통해 보리 작물과 관계된 단어를 정리하면, 18세기 말에는 9월 말에 파종을 하여(種麥) 겨울 동안 길러내어(麥長) 이듬해 4월에 추수(麥秋)를 하는 가을보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밖에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빈풍(邠風) 고사에 전거하여 농사를 짓고 벼를 짜는 등의 농가 행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인용문은 철에 따른 노동 행사가 주를 이루며, 8월에는 수확과 벼 짜기인 '기확(其穫)'과 '재적(載績)', 10월에는 낱알과 벼를 거두고, 타작하는 데 사용되었던 마당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가진 '납가(納稼)·'납화(納禾)'와 '척장(條場)'이 쓰였다. 인간의 노동력에 바탕을 둔 농가 행사 외에도 생태 순환 인식을 다룬 물후(物候)⁶²도 활용되었다. 1800년 5월 29일의 군호인 '명조(鳴蜩)'는 말매미가 우는 계절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개로 구분한 24절기는 농경사회에서 농사철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노상추일기』에 담긴 군호 중 절기와 관련된 것은 입춘, 춘분, 청명, 입하, 소한으로 5종 8건이 있다.

61 『世宗實錄』五禮 吉禮 「享先蠶儀」, “時日 書雲觀前一月 具時日【季春吉巳】. 報禮曹 禮曹啓 聞 散告攸司 隨職供辦”.

62 『삼국지연의』 중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불렀다는 고사에서 보이듯이 기상요소는 전쟁에서도 중시되었던 까닭에 고대 병법서에는 적지 않은 비중으로 각종 기상점 후법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군호로 사용된 물후는 농사 외에도 병법의 영역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김일권, 「전통시대 기상예측의 자료와 점후론 구조」, 『한국학』 제36권 제1호(2013), 220쪽 참조.

표7-『노상추일기』 중 24절기 관련 군호 목록(절기 순서)

절기	일기(음력)	양력 변환	군호
입춘	1803. 12. 23.	1804. 2. 4.	延祥
	1803. 12. 24.	1804. 2. 5.	建陽
춘분	1791. 2. 17.	1791. 3. 21.	春分
	1800. 2. 25.	1800. 3. 20.	平均
청명	1800. 3. 12.	1800. 4. 5.	清明
입하	1809. 3. 22.	1809. 5. 6.	立夏
소한	1798. 11. 30.	1799. 1. 5.	小寒
	1808. 11. 21.	1809. 1. 6.	小寒

입춘은 24절기 중 첫 절기에 해당하므로 한 해의 작황을 예측하였는데, 1803년에는 전각에 올리는 연상(延祥), 입춘첩 문구로도 쓰이는 건양(建陽) 등 국가와 왕실 일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구호가 이틀 연속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춘분은 춘경(春耕)이 시작되는 때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므로 1800년 2월 25일에는 ‘평균(平均)’이라고 하였다. 청명은 논농사 준비가 이루어져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고 할 만큼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로 보았고, 이날의 날씨가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소한은 추위가 극심해지는 시기이며 농사도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미리 가을걷이한 식량으로 비축하여 겨울을 나게 된다. 이에 1808년 10월 13일에는 ‘동장(冬藏)’이 군호로 사용되며 10월 중순에 가을 수확물 저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월력: 1일, 1주, 1년의 순환이 담긴 암구호

하루의 날짜를 군호로 삼을 때는 2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달과 날(月日)이 모두 표현될 때는 숫자가 한 자리 단위이며, 날(日)만 쓰일 때는 일자의 숫자가 두 자리라서 곱셈식으로 나타냈다. 한 자리 숫자의 조합으로는

1791년 2월 5일의 군호를 ‘이오(二五)’라고 한 것이 있으며, 곱셈으로 일자에 부합하는 숫자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1808년 9월 15일의 ‘삼오(三五)’와 1809년 3월 16일의 ‘이팔(二八)’이 있다.

연속되는 나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내어 주기(週期)를 설정하는 방법은 천간(天干) 사용과 시헌력(時憲曆) 도입 등 중국 문화권에 기인한다. 천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의 차례로 10개 글자가 순환하여 10일을 주기성을 갖는 것이다. 1798년 6월 10일은 ‘초순(初旬)’, 1809년 2월 19일은 ‘중순(中旬)’이라고 하여 한달을 열흘 단위[旬]로 구분하는 초순·중순·하순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1791년은 2월 7일은 ‘주회(周廻)’라고 하여 한 주를 돌았음을 뜻하는데, 이는 해와 달, 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 등 7개 천체의 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시헌칠정법(時憲七政法)의 영향으로 보인다. 효종 때 시헌력을 채택한 이후 역산 오류로 인해 관상감에서는 기존의 대통력(大統曆)으로 회복할 것을 여러 차례 상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조조에는 시헌력 역법이 정밀해져서 일식·월식·절기·분각 등의 산출이 이루어졌으므로,⁶³ 18세기 후반에는 칠요 운행에 기반한 7일의 주기성도 시간의 단위로 자리 잡혀 군호로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9일 또는 30일을 1개월씩 묶어 열두 달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중국 고대 역법, 천문, 계절의 흐름 등에 따라 이칭이 적용되었다. 중국 고대 역법의 활용례로 1800년 10월 11일의 ‘응중(應鍾)’은 십이율의 음계 중 12번째에 속하지만, 첫 음인 황중(黃鍾)을 양의 시작인 동지로 배속했으므로, 응중은 음력 10월을 뜻하게 된다. 중국 고대 국가의 율력을 살펴보면 하나라는 1월, 은나라는 12월, 주나라는 11월을 세수(歲首)로

63 『英祖實錄』 5년(1729) 5월 20일, “觀象監啓 一自大統曆變爲時憲之後 曆法精密 日月交食 及節氣分刻 無不脗合矣”.

삼으며 정월의 시작이 각기 달랐다.⁶⁴ 1800년 11월 1일의 군호인 ‘주정(周正)’은 주나라 정월을 의미하고, 앞의 황종을 동지에 배속한 것 역시 주나라 역법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절은 날씨와 생태 변화 등 자연 현상을 기준으로 1년을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봄·여름·가을·겨울로 분류하고 있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이칭으로 1798년 7월 3일 ‘초추(初秋)’는 사계절에 속한 석달을 나누어 첫달을 초·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세 번째 달을 만(晩)·계(季)로 구분하는 것에 따라 가을의 첫 달을 뜻한다. 계절의 한 가운데에 속한 달은 기간의 절반, 중앙으로 인식하며 1791년 2월 15일은 ‘춘반(春半)’, 1798년 11월 12일은 ‘정동(正冬)’을 군호로 삼았다.

천문을 접목하여 동양 별자리인 이십팔수(二十八宿)에 따라 계절을 구분하며 1791년 2월 3일 ‘성조(星鳥)’가 쓰였다. 성조는 남방 주조칠수인 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의 중앙에 위치하는 성숙(星宿)과 남방을 상징하는 붉은 주작(朱鳥)을 조합한 단어이다. 이밖에도 1790년 8월 23일의 ‘수성(壽星)’은 수명을 관장하는 노인성이며, 남극성의 관찰이 가능한 여름철의 군호로 사용되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자연물의 변화는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1년의 흐름을 관찰하여 물후로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노상추일기』 중 물후로 분류할 수 있는 군호는 동물과 식물의 변화 현상, 낮과 밤의 길이 등을 아우른다.

64 『漢書』 「律曆志」上, “其於三正也 黃鐘子爲天正 林鐘未之衝丑爲地正 太族寅爲人正”; 漢代 를 규정하는 공식 수명론인 삼통수명론은 한나라 이전의 역사에 대한 왕통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담론 체계로, 동중서의 삼통론에 따르면, 한나라는 黑統 북두칠성의 斗建이 寅의 방향일 때 정월 세수를 삼고, 은나라는 白統으로 두건이 丑의 방향일 때 세수를 삼고, 주나라는 赤統으로 두건이 子의 방향일 때 세수를 삼았다 하며 고대 천문역법의 세 기준이 되는 夏正, 殷正, 周正, 三正을 말하였다.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인간의 역사』(서울: 예문서원, 2007a), 152쪽 요약.

표8- 『노상추일기』 중 군호로 사용된 물후의 종류

분류	물후 종류	군호	시기(음력)
동물	기러기	候鴈	1월
	매미	淸蟬	6월
식물	꽃	花信, 芳春	2월, 3월
	국화	黃華	9월
	단풍	楓菊	9월
	감귤	柑橘	11월
기상 현상	낮밤의 길이	日中, 日永, 宵中, 宵永	2월, 윤4월, 8월, 9~10월
	결빙	鑿氷	12월

동물로는 겨울철에 돌아오는 기러기인 ‘후안(候鴈)’과 여름철의 매미를 뜻하는 ‘청선(淸蟬)’ 2종이 있다. 식물은 꽃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종류가 직접 드러나는 것은 ‘황화(黃華)로 가을철을 대표하는 노란 꽃인 국화 1종이다. 꽃의 번영에 따라 개화 소식을 전하는 ‘화신(花信)’과 만개를 의미하는 ‘방춘(芳春)’도 있다. 이 밖에도 가을을 대표하는 단풍과 가을을 뜻하는 ‘풍국(楓菊)’, 겨울철 황감제에 사용되며 귀한 과실로 대접받았던 ‘감귤(柑橘)’이 있다.

기상 현상과 관계된 것은 지구의 공전에 따라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을 다룬 ‘일중(日中)’, ‘일영(日永)’, ‘소중(宵中)’, ‘소영(宵永)’이 있다.⁶⁵ 또 기온이 낮아지며 물이 얼고, 얼음을 뜨는 업무가 있음을 뜻하는 ‘차빙(鑿氷)’도 물후의 영역에서 살필 수 있다.

65 “해그림자 길이를 측정하여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과 긴 날 그리고 같은 날의 네 가지 기준을 먼저 세운다. 동지는 日短至, 하지는 日長至라고도 한다. 『상서』 「요전」에서 日中, 日永, 宵中, 日短의 四氣를 말하였는데 각각 중춘, 중하, 중추, 중동의 4개월에 해당한다.”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서울: 예문서원, 2007b), 241쪽.

4. 기념일: 탄일, 속절, 세시풍속에 따른 암구호

조선후기 군호로 사용되는 국가의 주요 기념일은 왕실 일원의 탄일, 정조·한식·단오·추석·동지·납일 등 조선시대 6가지 속절,⁶⁶ 그 외의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세시별 행사로 분류할 수 있다.

『노상추일기』에서 군호가 기록된 정조~순조 연간에는 정순왕후, 혜경궁, 순조의 탄일에 맞춰 왕실 일원의 탄신 축하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1798년에는 정순왕후 탄일에 맞춰 11월 10일은 ‘경축(慶祝)’, 11월 11일에는 ‘기영(祈永)’을 쓰며 이틀간 축원하였다. 혜경궁 탄일은 순조 탄일과 동일한 6월 18일이었다. 따라서 6월은 여느 달보다 더 축복하는 달이었고, 한 달의 시작인 첫째 날에 ‘길월(吉月)’, ‘월길(月吉)’을 군호로 사용하였다. 또한 탄일에 맞춰서 1799년에는 ‘축만(祝萬)’, 1809년에는 ‘순하(純娥)’가 쓰였다. 1809년 1월 22~23일의 군호인 ‘환경(歡慶)’, ‘미수(眉壽)’는 혜경궁 가례 회갑과 경모궁 대리청정 회갑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속절로는 한식, 추석, 동지, 납일 4가지가 나타난다. 1792년 8월 15일에는 ‘중추(中秋)’, 1796년 12월 18일에는 납일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담아 ‘납근(臘近)’이 쓰였다. 1800년 3월 13일에는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을 셈하여 한식으로 삼는 것에서 비롯하여 ‘백오(百五)’라고 하고, 1800년 11월 29일에는 동지의 풍습인 동지헌말(冬至獻襪)과 관련하여 ‘이장(履長)’이 군호로 사용되었다.

그 외 관습적 행사로서 세시가 활용된 경우는 정월대보름, 석가탄신일, 초복(初伏), 칠석, 백중, 제석 등 6종 8건이 나타난다. 1809년 1월 15일은 ‘원소(元宵)’라고 하며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밤이라 하였고, 1808년

66 『經國大典註解』(後) 禮典 春官 宗伯 致祭條, “俗節 正朝 寒食 端午 秋夕 冬至 臘”; 『國朝五禮序例』 吉禮 時日, “俗節【正朝 寒食 端午 秋夕 冬至 臘】”.

표9- 『노상추일기』 중 세시풍속 관련 군호 목록(월별 세시 순서)

날짜	군호	현대 세시명	비고
1809. 1. 15.	元宵	정월대보름	
1791. 4. 8.	燈夕	석가탄신일	명절일
1809. 4. 8.	燈夕		
1798. 6. 8.	初庚	초복	
1808. 7. 7.	七夕	칠석	
1808. 7. 15.	中元	백중	
1803. 12. 29.	除夕	섣달그믐	
1810. 12. 30.	除夕		

7월 7일은 ‘칠석(七夕)’, 1808년 7월 15일은 ‘중원(中元)’이라 하여 백중을 도가(道家)의 삼원(三元) 중 중앙에 위치한 보름으로 칭하였다. 섣달그믐을 뜻하는 ‘제석(除夕)’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밤이라는 표현이다.⁶⁷

아울러 1798년 6월 8일인 경신일의 군호는 ‘초경(初庚)’이라 하여 첫 번째로 경자 친간이 든 날임을 드러내었다. 이때는 양력으로 환산하면 7월 20일로, 초복에 해당된다. 복일을 셈할 때 하지를 기준으로 세 번째 경일을 초복, 네 번째 경일을 중복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복은 중경일(仲庚日)이라 불리우기도 하므로, 맹(孟)·중(仲)·계(季)의 삼분법에 따라 이때의 초경은 삼복 중 첫 번째인 초복의 이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

67 “除라는 말은 舊曆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과 그해의 온갖 나쁜 것을 제거한다는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말이다.” 류종목, 「12월」,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6), 233쪽.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법전 조목에 나타나는 군호 시달 체계를 살펴보고, 무관 노상추의 일기 중 중앙 군영 재직 당시 기록하였던 422건의 군호를 낱씨, 농사, 월력, 기념일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며 조선후기 군호 작명과 생활상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조선 건국 초기부터 궁성 시위와 순검을 위해 사용된 군호는 『경국대전』부터 법령의 내용으로 언급되었고, 『속대전』에 이르러 조목으로 나타난다. 군호 초기와 반포는 성문 폐쇄 시간에 따라 신시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국왕의 안위와 밀접하게 관계되므로 매일 계품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왕이 궁 밖에서 유숙할 때는 해당 날짜만큼 군호를 미리 재가받아서 대내에 보관하여 평소와 같이 계하가 이루어졌으며, 왕세자가 책봉되면 국왕의 직무를 대행하여 달하(達下)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승정원일기』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면, 입직군사 간의 군호를 확인하는 방식은 동시에 큰소리로 외치는 호응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낮추고 한 글자씩 문답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지만 기존 방식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군호로 사용된 단어에 문제가 있거나 서류 작성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작명 담당관인 병조 당상이 추고를 당했다. 아울러 야금 순찰 시에 근무 태만으로 군호를 통하지 못하면 야간통행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경수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노상추일기』 중 1790년부터 1811년에 기록된 군호 422건을 목록화하였는데, 그중 402건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군호는 외부 유출이나 누설이 법령으로 금지되었지만, 일기가 가진 개인의 내밀한 문서라는 특성이 기밀문서 보안의 제약을 넘어서 후대에 자료를 남겨준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노상추일기』 중 군호는 모두 2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성 단어는 289개,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는 55개로 전체 289개 단어로 집계된다. 따라서 같은 달에 동일한 단어를 2차례 이상 중복되거나 2~3일 연속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동일 단어가 연속 사용된 것은 군호 최고 결재권자인 왕의 건강 악화나 공제(公除) 기간과 관계되며, 대표적으로 정조 국장이 이에 해당한다. 3회 이상 사용된 단어는 무관 업무로서 야금 순찰, 무예 시험, 왕실의례로 인해 임금의 거동이 이루어질 때 호위와 관계된다. 이외에도 군호 작명은 당일 또는 근일(近日)의 행사와 관계되며, 비·눈·구름 관찰, 기우제 기간 중 강우 기원, 파종과 수확, 24절기, 1일·1주·1달·1계절의 순환, 자연 생태 순환 인식을 담은 물후, 탄일과 속절, 세시 풍속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호 중 이용 빈도가 많은 단어는 무관 업무와 관계되지만, 생활상을 담은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매일 새로운 군호를 만들어야 하는 작명의 사정과 더불어 『노상추일기』의 서술 시기적 특징으로 정조의 위민(爲民), 효(孝)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생활일기에서 정조~순조 연간 국가기밀에 속하는 조선시대 군호를 추출하여,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연구되지 못했던 조선 군대의 경계 근무와 관련된 암호를 목록화하여 생활상과의 관계를 검토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집, 일기, 세시기, 류서류 등에 나타나는 조선후기 생활사를 포함한다면 당대의 풍속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노상추일기(『庚戌日記』~『辛未日記』).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國朝五禮序例』.

『東國輿地備攷』.

『萬機要覽』.

『無名子集』.

『世宗實錄』 「五禮」.

『續大典』.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燃藜室記述別集』.

『英祖實錄』.

『銀臺條例』.

『正祖實錄』.

『太祖實錄』.

『弘齋全書』.

『訓局臚錄』(K2-3399).

『周禮』.

『漢書』.

2. 저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6.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노상추 일기』 5~1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8~2020.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인간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a.

_____,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b.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서울: 너머북스, 2009.

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을 지켜라』.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20.

이육,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서울: 민속원, 2017.

3. 논문

김일권, 「전통시대 기상예측의 자료와 점후론 구조」. 『한국학』 제36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217~253쪽.

유현주, 「『고려사』 「禮志」 嘉禮를 통해 본 고려시대 國俗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0.

정현은, 「조선후기 무관 노상추의 중앙 관직 생활과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73권, 2019, 193~232쪽.

4. 기사

이윤석, 「1902년 5월 12·13일 밤 대한제국 육군 암호호는」. 《월간중앙》, 2021년 2월호.

정진술, 「조선시대 암호 신호 체계」. 《문화재사랑》, 2010년 11월호.

최재복, 「조선시대 암호, 군호」. 《경향신문》, 2006년 12월 17일자.

5.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s://jsg.aks.ac.kr>).

<부록> 『노상추일기』 중 일자별 군호 422건 목록

(누락: □□, 식별불가: ■■)

1790년(5건)		04. 18.	試藝	09. 19.	展拜	06. 08.	初庚	04. 23.	薰風
06. 24.	舞蹈	04. 25.	調順	10. 01.	□□	06. 10.	初旬	04. 24.	射放
07. 24.	秋涼	04. 26.	中日	10. 02.	澄晴	06. 13.	開霽	04. 25.	望雨
08. 17.	其種	04. 27.	□□	10. 03.	巡綽	07. 01.	齋明	05. 12.	巡綽
08. 23.	壽星	05. 04.	雨粟	10. 13.	鍾漏	07. 02.	中日	05. 13.	軍號
12. 25.	晴寒	05. 05.	進鏡	10. 14.	中日	07. 03.	初秋	05. 14.	號軍
1791년(53건)		05. 06.	祓禊	10. 15.	暢月	07. 21.	沛然	05. 30.	巡綽
01. 12.	判堂	05. 13.	巡綽	10. 16.	講製	08. 08.	喜霽	06. 01.	吉月
01. 13.	試才	05. 14.	巡夜	10. 17.	瑞雪	08. 09.	日吉	06. 02.	□□
01. 14.	豐泰	05. 15.	巡更	10. 18.	清嚴	08. 10.	□□	06. 18.	祝萬
01. 21.	禁直	05. 22.	齋餘	10. 28.	展禮	08. 26.	秋陰	06. 19.	大政
01. 22.	和豐	05. 23.	齋夕	10. 29.	中日	08. 27.	載績	06. 20.	□□
01. 23.	春溫	05. 24.	齋正	10. 30.	晉對	08. 28.	星駕	1800년(97건)	
01. 24.	巡綽	06. 02.	調順	11. 01.	周正	09. 15.	展拜	02. 16.	萬安
01. 25.	陽坡	06. 03.	喜雨	11. 03.	白雪	09. 16.	□□	02. 19.	發生
01. 26.	春意	06. 04.	溫風	1796년(23건)		09. 17.	□□	02. 22.	春晴
01. 27.	始耕	1792년(42건)		08. 17.	康吉	10. 21.	■■	02. 25.	平均
01. 28.	潤發	07. 05.	除暑	08. 19.	治平	10. 22.	射放	02. 27.	籌對
01. 29.	候鴈	07. 06.	中日	08. 23.	宵中	10. 23.	巡更	03. 11.	周洽
02. 03.	星鳥	07. 07.	試製	08. 25.	載績	11. 10.	慶祝	03. 12.	清明
02. 04.	中日	07. 08.	有秋	09. 18.	試藝	11. 11.	祈永	03. 13.	百五
02. 05.	二五	07. 09.	新涼	09. 23.	清肅	11. 12.	正冬	03. 14.	喜晴
02. 06.	呼應	07. 10.	時若	09. 26.	康吉	11. 28.	時寒	03. 15.	展誠
02. 07.	周廻	07. 17.	日雨	09. 30.	康寧	11. 29.	次對	03. 16.	清和
02. 08.	東作	07. 18.	晴涼	10. 16.	文武	11. 30.	小寒	03. 17.	調習
02. 15.	春半	07. 26.	巡綽	10. 18.	勤政	12. 17.	清齋	03. 18.	中日
02. 16.	花信	07. 27.	中日	10. 21.	展誠	12. 18.	■■	03. 19.	和暢
02. 17.	春分	08. 09.	成熟	10. 22.	宵永	1799년(28건)		03. 20.	清道
02. 24.	□□	08. 10.	中日	10. 27.	康年	01. 22.	靜鎮	03. 21.	禮成

02. 25.	吉良	08. 11.	清肅	11. 17.	豐徵	01. 23.	中日	03. 22.	十萬
02. 26.	清道	08. 15.	中秋	11. 18.	試藝	01. 24.	中日	03. 23.	花辰
03. 10.	晴和	08. 16.	豐熟	11. 22.	誠禮	02. 11.	大吉	03. 24.	芳春
03. 11.	麥長	08. 17.	晴肅	11. 25.	添線	02. 12.	日中	03. 25.	□□
03. 12.	豐徵	08. 24.	清明	11. 26.	晴溫	02. 13.	好雨	03. 29.	紅綠
03. 13.	花辰	08. 25.	調和	12. 17.	巡綽	02. 29.	清齋	03. 30.	春夏
03. 14.	調順	08. 26.	□□	12. 18.	臘近	02. 30.	風泉	04. 01.	□□
03. 15.	和豐	09. 02.	暄清	12. 25.	臨陽	03. 01.	□□	04. 08.	放榜
03. 22.	細潤	09. 03.	清朗	12. 26.	中日	03. 05.	時雨	04. 09.	膏潤
03. 23.	和暢	09. 04.	黃華	12. 27.	警嚴	03. 17.	和暢	04. 10.	日長
03. 24.	農桑	09. 05.	秋成	1798년(31간)		03. 18.	調順	04. 17.	冀澍
04. 07.	巡綽	09. 15.	月圓	05. 01.	賓對	03. 19.	好雨	04. 18.	興雲
04. 08.	燈夕	09. 16.	收成	05. 11.	巡綽	04. 05.	製講	04. 19.	薰風
04. 16.	麥秋	09. 17.	樂育	05. 15.	巡更	04. 06.	晴薰	04. 26.	冀澍
04. 17.	日雨	09. 18.	清朗	06. 05.	甘露	04. 07.	展慕	04. 27.	中日
04. 28.	興雲	09. 19.	□□	06. 09.	盛暑	11. 29.	大音	04. 17.	清和
04. 29.	油然	09. 20.	秋晴	06. 10.	詢謨	11. 30.	肄儀	04. 18.	懽慶
04. 30.	□□	09. 24.	丁東	06. 26.	望雨	12. 01.	朋來	04. 22.	輪對
윤4. 01.	月吉	09. 29.	種麥	06. 27.	齋敬	12. 08.	巡綽	04. 23.	舒長
윤4. 11.	日永	09. 30.	納稼	06. 28.	感時	12. 09.	鑿氷	04. 24.	調順
윤4. 12.	中日	10. 01.	□□	07. 05.	法講	1809년(68간)		04. 28.	緝熙
윤4. 13.	賓對	10. 11.	應鍾	07. 06.	試藝	01. 03.	清齋	04. 29.	壽域
윤4. 18.	射放	10. 12.	眺肺	07. 07.	七夕	01. 04.	萬億	04. 30.	野潤
윤4. 23.	劉笏	10. 13.	更漏	07. 14.	夜禁	01. 05.	陽煦	05. 04.	齋明
윤4. 24.	拱聚	11. 03.	攀號	07. 15.	中元	01. 09.	慶月	05. 05.	如在
윤4. 25.	喜德	11. 04.	清寒	07. 16.	巡更	01. 10.	中日	05. 06.	展禮
윤4. 29.	賓對	11. 05.	孝思	08. 18.	清嚴	01. 11.	飮詢	05. 16.	默禱
05. 01.	瞻漢	11. 06.	誠慕	08. 19.	肅敬	01. 15.	元宵	05. 17.	望雲
05. 02.	同熏	11. 12.	巡更	08. 20.	恪勤	01. 16.	講製	05. 18.	雲行
05. 15.	軍號	11. 13.	添線	08. 27.	清肅	01. 17.	煙月	05. 22.	祈洽
05. 16.	巡綽	11. 14.	展誠	08. 28.	夜漏	01. 21.	恒升	05. 23.	誠敬
05. 17.	軍號	11. 27.	星昴	08. 29.	稼登	01. 22.	歡慶	05. 24.	油然

05. 26.	□□	11. 28.	泰來	09. 06.	菊製	01. 23.	眉壽	05. 28.	對越
05. 29.	鳴蜩	11. 29.	履長	09. 07.	鴈賓	01. 24.	晝講	05. 29.	孚感
05. 30.	來吉	12. 12.	貞元	09. 08.	楓菊	01. 25.	講對	05. 30.	巡衛
06. 01.	月吉	12. 13.	日舒	09. 15.	三五	01. 26.	感慕	06. 04.	魁虐
06. 02.	時行	12. 14.	瑞雪	09. 16.	清朗	02. 18.	晴佳	06. 05.	圭璧
06. 16.	中日	1803년(7건)		09. 17.	巡城	02. 19.	中旬	06. 06.	謹嚴
06. 21.	臻安	12. 23.	延祥	09. 24.	誓戒	02. 10.	春寒	06. 13.	勃興
06. 22.	臻安	12. 24.	建陽	09. 25.	萬安	02. 27.	壽錫	06. 14.	賓對
06. 23.	臻安	12. 25.	賓對	09. 26.	收成	03. 03.	好雨	06. 15.	飭禁
06. 25.	豐徵	12. 26.	晴和	10. 04.	納禾	03. 04.	霽景	06. 16.	巡夜
06. 26.	清蟬	12. 27.	日吉	10. 05.	都俞	03. 05.	物茁	06. 17.	洒雨
07. 10.	禾茂	12. 28.	喜雪	10. 06.	滌場	03. 09.	花辰	06. 18.	純嘏
07. 11.	禾茂	12. 29.	除夕	10. 13.	冬藏	03. 10.	展禮	06. 21.	報謝
07. 12.	禾茂	1808년(62건)		10. 14.	射放	03. 11.	□□	1810년(3건)	
07. 22.	條炎	윤5. 22.	雲行	10. 16.	定中	03. 15.	晴和	12. 28.	□□
08. 07.	齋明	윤5. 23.	虔誠	10. 22.	征輶	03. 16.	二八	12. 29.	中日
08. 08.	振勳	윤5. 24.	喜雨	10. 23.	巡夜	03. 17.	導和	12. 30.	除夕
08. 09.	平分	윤5. 25.	霏然	10. 24.	分更	03. 21.	清禁	1811년(3건)	
08. 18.	節宣	윤5. 26.	勃興	11. 02.	瑞雪	03. 22.	立夏	01. 19.	康復
08. 19.	西成	윤5. 27.	慶野	11. 03.	肅靜	03. 23.	誓戒	01. 20.	製講
08. 22.	其獲	윤5. 28.	勤勵	11. 04.	凝寒	04. 07.	豐徵	01. 21.	慶忭
08. 25.	次對	윤5. 29.	普洽	11. 11.	召對	04. 08.	燈夕		
09. 05.	推廣	06. 01.	晴吉	11. 12.	中日	04. 09.	麥秋		
09. 06.	攀號	06. 05.	警飭	11. 13.	勤學	04. 10.	宿衛		
09. 07.	深嚴	06. 06.	較藝	11. 20.	賓對	04. 11.	巡綽		
09. 17.	風樹	06. 07.	禁夜	11. 21.	小寒	04. 12.	靈雨		
09. 18.	宵永	06. 08.	豐徵	11. 22.	柑橘	04. 16.	長養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군호 작명과 생활상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해 법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궁성 방위와 야금 순찰에 활용된 군호의 시달 체계를 살펴보고, 조선후기 무관인 노상추의 일기에 기록된 군호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조선시대 순작(巡緝)은 개국 초부터 시행되었고 『경국대전』에도 군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군호 조목은 『속대전』에 이르러 추가되어 담당관, 제출 시간, 기밀 누설 시 형벌, 교외 거동 시 재가 방법 등이 수록되었다. 특히 군호 보고와 전달은 궁성문 폐쇄 시간과 관계되어 매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국왕 부재에 따른 2가지 군호 재가 방식은 왕제자 책봉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대조례』에는 대상(大喪)을 당했을 때 전달 제한한 군호를 공제(公除)까지 사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노상추일기』에는 정조 국장 중 군호 계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 밖에도 『승정원일기』를 통해 사례를 검토하여 피아식별용 암구호의 활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노상추일기』를 통해 정조~순조 연간인 1790년부터 1811년에 사용된 군호 422건을 목록화하였다. 군호는 모두 2글자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횟수에 따라 일회성 단어 234개,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는 55개로 총 289개의 단어로 나타났다. 군호로 쓰인 단어는 왕실 행사, 무관 업무와 관련되며, 이 밖에도 비·눈·바람에 대한 관찰, 기우제 기간 중 강우 기원, 파종과 수확, 24절기, 연월일의 순환, 자연 생태 순환 인식을 담은 물후, 탄일과 속절, 세시풍속 등과 관계된다. 따라서 각각 날씨, 농사, 월력, 기념일의 주제로 분류하여 군호에 반영된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투고일 2023. 3. 19.

심사일 2023. 4. 17.

계재 확정일 2023. 5. 10.

주제어(keywords) 노상추일기(Diary of Noh Sang-chu), 무관(military officer), 순작(night patrols), 군호(military passwords), 생활상(lifestyle)

Abstract

A Study on the Lifestyle Reflected in the Military Passwords of the Late Joseon Dynasty: Viewed from *the Diary of Noh Sang-chu* Kim, Yoonhee

This study encoded articles to understand the instruction system of military passwords used for royal palace defense and night patrols in the Joseon Dynasty. Additionally, it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ming of military passwords and lifesty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reviewing a diary written by Noh Sang-chu, a military officer.

The practice of palace patrols commenc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military passwords are also mentioned in *Gyeonggukdaejeon* (經國大典). The articles about military passwords were added to *Sokdaejeon* (續大典), which included information regarding the official in charge of naming, submission time, punishments for intelligence leaks, how to obtain approval, periods without a king (in the event of his outing, for example) etc. In particular, military passwords were reported to superiors and subordinates were instructed about them during Sinsi (申時, 15:00~17:00), which was related with the closing time of the palace doors. Two kinds of approval of military passwords during periods without a king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investiture of crown princes. An article indicates that the military passwords sanctioned by a king a day before the royal funeral were to be used until Gongje (公除) was added to *Eundaejorye* (銀臺條例), and it is possible to verify how military passwords were sanctioned during the state funeral of King Jeongjo from the *Diary of Noh Sang-chu*.

Next, a list of 422 military passwords used during the period from King Jeongjo to King Sunjo (1790-1811) was created by referencing the *Diary of Noh Sang-chu*. All military passwords comprised 2 letters, and a total of 289 words could be divided by frequency of use: 234 words were used just once, while 55 words were used more than twice. The words used as military passwords were associated with royal events and military officers' tasks as well as observations regarding rain/snow/wind, sowing and harvest, the 24 divisions of the year, the cycle of year/month/day, royal birthdays and ancestor-memorial

days, seasonal customs, etc. Thus, we analyzed the lifestyle reflected in the countersigns by classifying them into several themes such as weather, farming, calendars, and anniversaries.

